

“시산업 성공 여부 인재확보에 달려”

광주시, 서울서 보고대회...기술·제도 마련 논의 이용섭 시장 “가시적 성과로 AI 4대 강국 뒷받침”

광주시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한 정부, 법조·금융·산업·학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초인 AI가 온다’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AI가 바뀌는 미래를 전망하며, 인공지능 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확보, 제도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국민의힘)·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영진·양항자·윤관석·김진표 의원, 박보경 청와대 경제보좌관, 구윤

철 국무조정실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면서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과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면서 “위기에 강한 광주는 수많은 변화들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로 만들어내며 인공지능 4대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산업의 성공여부는 인재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전남대·조선대·호남대 등 지역대학의 AI 대학 및 학과 개설 등을 소개했다.

또 “지난 1년간 인공지능 기업·기관 5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중 34개사가 광주에 둠지를 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광주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AI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은 21세기를 지배할 패러다임이다. 10년 안에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국가가 210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함께 전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융합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10만명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AI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양질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발벗고 뛰겠다”며 “2022년까지 AI 인재 5,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000억원의 추정 예산을 투입해 10개 분야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AI분야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신정훈, 마그네슘소재산업 육성 국회포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23일 마그네슘 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포럼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은 신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송갑석 간사와 소병철·서동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용 판재를 생산·공급하는 순천시 해동산단을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허브로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순천시를 방문해 3,000억원 투입을 약속한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초경량소재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마그네슘이 미래 제조 생태계 중심점이자 소재부품산업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국회에서도 산업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순천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세계 최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광주시는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을 연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에 대해 연내 최대 4회, 회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가능 시기까지 횟수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횟수 증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난임 부부가 임신준비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고통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아이를 품에 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발언하는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남, ‘빈집 양도세’ 조특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소유자



가 쉽게 철거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가적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42만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3%인 53만호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한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 15개 지점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시행...월 최대 6만원 보상

광주 군공항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23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선정에 관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광주 시내 15개 지점에서 이날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진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서·북구에서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조사지점을 선정했다. 조사지점은 자치구별로 광산·서구가 6곳씩, 북구는 3곳이다.

소음영향도는 군공항이 가·착륙 때 측정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15개 지점에서 연속 7일간 24시간 동안 소음을 2회차 이상 측정한다. 2차 측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전문장비와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관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담당 지자체도 조사종료 전 의견을 제

출한다.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1~3종으로 구역을 나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각 구역은 항공기 소음평가단위인 웨클(WECPNL) 기준으로 95 이상 제1종, 90 이상 95 미만 제2종, 85 이상 90 미만 제3종으로 구분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고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께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정과 고시 절차까지 끝나면 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은 별도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최소 3만원, 최대 6만원씩 보상을 지급받는다. 보상금 지급시기는

2022년부터 예상된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은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9건이 종결됐고, 시민 4만8,800명이 1,654억원을 청구해 정부로부터 1,353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윤영봉 기자

이용빈 “쓰레기 처리 입법 등 역할 모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일회용품 없는 일상 만들기’ 현장을 찾았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광산구 주민참여 플랫폼 송정마을카페 이공에 마련된 ‘우리동네 회수센터’를 방문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펼치는 김지현 유어스텝 대표와 만나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의원은 ‘우리동네 회수센터’에서 우유팩과 듀우·주스팩 분류 수거법에 대해 배우고, 음료수 병뚜껑과 같은 작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방앗간도 체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



의발길이 끊어지자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자연환경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환경은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원이며,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쓰는 것인데 기후위기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구를 지키는 혁신행동이 일상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제안과 입법 활동을 강구하는 등 국회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 010-3637-3735
-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6 (화정동)

보광종합건설(주)